

그래서 이번년도, 저는 잘 풀릴까요.

기미대로 되는 건 없지만 그래도 기미가 없으면 좀 살이 찌찌해지 않나. 타로를 봤다. 올해 한 번쯤은 보고 싶었다. 선생님. 살이 제 마음대로 되지 않는 데 이번년도는 좀 어떠려나요. 제가 올해 아홉수여 서요.

"9월까지 견디다 보면 그 후면 좋은 일이 찾아올 거 같아요. 이렇게 카드가 나오는 건 실천 않은대요. 조금만 베티고 또 아직 놓지 않고 같은 것들이 있는데 조금 풀어주는 것도 좋을 거 같네요."



이번년도 운은 나쁘지 않다고 한다

SKT 딸발 방송국에서 메니저로 일하고 있는 진희. 점진 스타벅스로 불리우며 대중 타로를 보달라 하니 보자기를 알고 낙타 카드를 끄내며 설명해준다. 타로는 삶이 이전한 경우의 수라고 해요. 인생도 인과관계가 있듯이 타로 카드를 읽는 것도 카드짜리 관계를 짓는 거죠. 타로요? 예전 타로 카페에서 알았었는데 몇 번 접이겠죠. 근데 잘한다고 하길래 돈도 더 받으면서 하다가 자격증까지 딴 거죠.

"원래는 예술을 했었지?"

"그렇죠. 영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다 한국에 다시 왔죠. 미술을 하고 살았고, 음악을 하고 싶었죠." "그런데 못 하게 된 건…?"

"집안 반대죠. 워. 그래서 수도권 대학 갈 수 있는데 대전으로 내려왔죠. 어머니 반대가 심했었죠. 고등학교 때 어구부였고 또 글지도 좋아하셨던 거 같은데 어여 해 볼기에 더 예술에 대한 흑의감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해변 생각했죠. 나는 예술가인가, 내가 하는 건 예술인가. 그리고 이제는 알겠어요. 예술이 꼭 어렵고 진지할 필요는 없다는 걸 알았죠. 나는 내가 돈 벌어서 내 예술을 살 거예요."

"내가 돈 벌어서 내 예술을 산다는 건 진짜 작품을 산다는 것 같진 않은데!"

"맞아요. 제 작품을 누군가 사지 않는다고 그게 예술적 가치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예술은 그치 표현하고 살은 걸 하는 거라 생각해요. 그게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가지나는 다음 문제고요. 내 작품 아무도 안 산다 해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계속하기 위해 돈을 벌겠다는 거죠."

전회는 대전에서 아티스트로 모여 팀을 결성하기도 했고 음악을 만들어 소속사에 들어가기도 했다. 글을 써 단편 모음집과 작품집을 풀리기도 했다. 돈을 주며 체력을 비축할 때마다 있고 돈 쓰고 흙을 쓰며 작품 활동을 할 때가 있다. 실제 작품 활동을 시작하면 20kg가 빠지기도 한다. 안 먹고, 안 자고. 그려면 나는 죽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 작품이 나온다. 지난 전부터 준비해서 물반도 하나 나를 계획이다. 예술인의 정체적인 삶. 아침엔 일을 하고 밤에는 작업을 하는 삶이다.

"그런 삶이 세속적으로 많이 지치진 않아?"

"뭣인 하죠. 하지만 내 삶에 무엇이 주하고 무엇이 보조적인 것이나 묻는다면 저는 SKT 메니저가 보조적인 것이고 작품 활동이 주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걸 맞지 않죠."

"정말 심친 걸로 살이네. 그럼 너는 올해 어떤 운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타로 볼 수 있어?"

"타로를 볼 때 꼭 원가를 받거든요. 타로는 내 운을 사용해서 내 미래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운을 들을 때마다 예산 복제를 받는 거죠. 그래서 내 운을 스스로 짐 지면 내 운을 내가 써 버리는 거예요. 노력 10을 들여 마땅 수 있는 걸 내 운을 험으로 노력 20을 쓰는 거죠."



SKT 방송국

이 남자의 올해 행운은 어제 될 자가 내 아홉수보다 더 출미연진해지던 타로 마실다. 타로를 스스로 보지 않는 건 불운을 갖는 거란다. 내 운을 사용해서 내 운운을 짐지라는 것. 어쩌면 행운도 개인마다 다 할당량이 있는 걸까? 그래서 예술가들은 그렇게 불운한 삶을 사는 걸지도 모른다. 좋은 작품이 타지는 대로 인생의 행운을 다 걸어버린 거지. 견해도 이미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선생님. 그분 저는 이번년도 잘 거 하나 다가온다 되는 걸까? 예? 타로는 그냥 삶이 보여주는 최고의 결과일 뿐이라고요? 어하… 일단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